

자동차 생산방식의 변화가 주는 일·중 산업구조의 미래

- 자동차 생산방식이 “해외현지생산” 과 “전기자동차의 도입” 이라는 환경변화에 당면한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동차 생산 감소에 의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
- 또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가 산업의 향후를 좌우할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

□ 일본의 자동차산업과 제조업의 연관성

- 일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부가가치와 원재료, 부품 등은 전체 생산액의 약 90%, 자동차생산에 관련된 고용은 545만 명(국내 고용의 약 8.7%)으로 추산
- 그러나 1990~2009년 연간 평균 성장률은 약 1.4%로 성장이 정체
 - 성장이 정체된 원인은 △해외 현지 생산의 진전, △전기 자동차(EV: Electric vehicle)의 도입이라는 자동차 산업 구조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

□ 자동차 생산 감소에 의한 영향은 일본 산업 전체에 파급

- 자동차 관련 산업에 의존하는 일본에서는 자동차 생산 부진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남
 - 현재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자동차의 50%가 2020년에 중국

으로 생산 이전될 경우, 일본 산업 전체의 생산액은 2007년 대비 약 16조7591억엔 감소 예상

- 중국은 전체의 생산액이 20조4936억엔 증가 예상

- 경제산업성은 “산업구조 비전(2010년 6월)”에서 자동차산업에 의존하는 제조업 구조의 전환 등 전략 분야 강화를 지적

<중국 현지 생산에 의한 산업에의 영향>

(단위 : 엔)

구분	일본	중국
총 생산액	△16조7591억	20조4936억
자동차	△7조1780억	8조1172억
자동차 부품	△3조7854억	2조8428억
철강·비철·금속제품	△9414억	2조885억
플라스틱·고무	△5377억	-
일반기계	-	1조2619억
산업용 전기기기·기타 전기기기	△3868억	-
서비스	△9825억	6226억
상업	△5938억	4874억
금융·보험·부동산	△3301억	-

자료: 日経ビジネス(2010.09.03)에서 정리

□ 성장이 기대되는 EV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

- 일본이 EV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큼
 - 2020년에 EV 전동시스템이 일본에서만 생산할 경우 생산액은 11조 342억엔 증가, 중국에서만 생산할 경우의 생산액은 일본에서만 생산할 경우 대비 8조9087억엔 감소 예상
 - EV의 보급에 의해 모터, 배터리, 전자기기 등으로 구성된 전동 시스템이 중요하게 되므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

- * 중국에서만 생산할 경우, 일본에서만 생산할 경우에 비해 △플라스틱·고무제품 3114억엔, △석유·석탄제품 1297억엔, △운수 2534억엔, △상업 3140억엔, △금융·보험·부동산이 2624억엔 감소 예상

〈EV 전동시스템의 생산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〉

(단위 : 엔)

구분	EV 전동시스템을 일본에서만 생산할 경우	EV 전동시스템을 중국에서만 생산할 경우
총 생산액	11조342억	△8조9087억
철강·비철·금속제품	1조4304억	△1조3272억
산업용 전기기기·기타 전기기기	1조949억	△1조443억
서비스	9652억	△8311억
화학제품	9056억	△8345억

자료: 日経ビジネス(2010.09.03)에서 정리

- 중국에서 모든 전동시스템을 생산할 경우, 중국 산업의 전체 생산액은 25조4135억엔에 달할 예상
 - 일본 산업에 끼치는 영향보다 중국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큼
 -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경우 국내 생산액의 차이는 일본이 8조 9087억엔, 중국이 11조3940억엔으로 예상
- 전동시스템의 생산은 배터리, 산업용 전기기기, 서비스 등과 상대적으로 연관성 크기 때문에 일본 산업에서 매우 중요

□ 시사점

-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는 일·중 산업 활동에 대한 영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극단적인 분석임
 -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

- 한국도 자동차 관련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
 - 한국의 2012년 상반기 수출에서 △자동차 250억3274만불(전체 수출액 3위), △자동차부품 121억8013만불(6위)
 - * 자료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“한국무역통계, 품목별 수출입“ <http://www.kita.net/statistic/index.jsp>
 - 또한 한국 자동차의 해외 판매 증가에 따라 해외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어 산업공동화가 우려됨
- 에너지 및 환경 문제 때문에 향후 자동차시장에서 EV가 핵심이 될 것임으로 한국이 EV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개발투자가 필요함

<참고자료>

日経ビジネス, ‘2020年の日中産業構造’ (2010.09.03)